

북스

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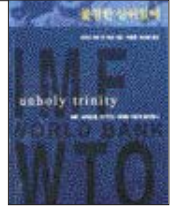
세계경제 괴물들, 차라리 없애 버려라

<IMF·세계은행·WTO>

불경한 삼위일체 리처드 피트 외 지음

북경의 나비 날갯짓이 뉴욕에서 허리케인으로 변한다는 물리학 이론 '나비효과'를 연상케 한다. 한국 증시가 미국 경제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대열에 끼지 않으면 곧 도태될 것처럼 여기며 신자유주의를 앞세워 부르짖었던 세계화의 어두운 이면인 것이다.

미국 클라크대학의 리처드 피트 교수가 쓴 '불경한 삼위일체'는 세계 각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 기구,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국제무역기구(WTO)를 강하게 비판한 책이다. 공동저자 목록에 학부생 16명의 이름이 올라 있는 만큼 꼼꼼한 기초조사를 통한 탄탄한 구성이 눈에 띈다.



저자가 이들 세 기구를 '불경하다(unholy)'고 표현한 것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이들이 신자유주의 원칙에 입각해 정치·경제 권력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세계를 재편하는 일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간 빈익빈·부익부를 부추기는, 성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다.

저자는 우선 IMF와 세계은행의 설립배경인 1944년 브레튼우즈 회담의 성격을 되짚는다. 세계 44개국이 모여 전후(戰後) 평화를 대비해 경제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다른 나라들은 회담을 주도했던 영국과 미국의 틀러리에 불과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과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회담 전에 이미 "무역을 확대되고 통화를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자고 합의한 상태였다.

저자는 세 기구에 각각 한 장(章)씩을 할애해 역사를 정리하고 이들이 어떻게 세계 주요 금융기구를 장악해 들어갔는지 파헤친다. 저자는 특히 이들 세 기구가 "설립헌장에서 원래 합의했던 바와는 아주 거리가 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IMF는 환율과 국제 단기대출 관련 일을 했지만 1970년 중반부터 제3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강한 긴축을 조건삼아 대출금을 주는 개입주의 정책을 택했다. 세계은행은 전적으로 피폐해진 유럽 재건을 위한 소소한 역할을 맡았지만, 점점 IMF와 협력해 신

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채택하는 구조조정에 관여하게 됐다. 이같은 '불경한' 협력은 워싱턴·월스트리트 동맹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주목조목 따진다.

저자는 WTO 회담이 있을 때면 회의장 밖에서 경찰과 싸우는, '50년이면 충분하다', '주빌리사우스', '제3세계 네트워크' 등 다양한 NGO들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훑어보고 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말한다. 경제는 물리학처럼 객관적으로 다뤄질 수 없는 것이며, 문화이론처럼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있는 자들의 입장에서만 힘을 행사하는 이들 세 기구가 본래의 기능을 되찾지 않을 바에는 "없애버려야 한다"고 강조한다.<삼인·1만8천원>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난 1999년 워싱턴D.C.에서 열린 IMF 회의. IMF가 대출국에 강하게 개입하는 것은 본래 설립취지에서 벗어난 것이다.

가우디가 설계한 미로속 진실을 찾아서

가우디 임팩트 에스테반 마르틴·안드레우 카란사 지음

근대 역사상 가장 유명한 건축가 가운데 한 명인 스페인의 안토니오 가우디(1852~1926)의 죽음을 소재로한 건축 미스터리 소설이 출간됐다.

천재 가우디는 그가 남긴 성가족 성당, 구엘공원, 카사밀라 등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통해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로 만든 주인공이다.

최고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성가족성당은 120년 동안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그러나 그는 1926년 6월7일 바르셀로나 시내에서 전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뒤 신원 미상의 행방으로 병상에 누워있다가 불과 3일 만에 숨을 거둔다.

스페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 에스테반 마르틴

과 안드레우 카란사가 공동집필한 '가우디 임팩트'는 '가우디가 설계했다'는 의문을 단초로 전개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고 당일 가우디는 현장을 지나던 택시 세 대가 이송을 거부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져 결국 사망했는가 하면 무덤이 훼손되는 사건까지 발생한다. 여기에 가우디는 죽기 직전 '나에게 죽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슬프게도 내 손으로 사그라다 파밀리아(성가족 성당)를 완성시키지 못할 것이다'라는 메모를 남긴다.

소설은 가우디 사후 80년이 지난 2006년 6월 7일 한 권의 일기장이 발견되는 데서 시작된다. 일기를 쓴 후안 히벨은 가우디가 사고를 당한 현장을 목격



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생을 마감한다.

히벨의 손녀 마리아와 남자친구 미겔은 할아버지가 죽음에 이르러던 과정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우디의 죽음에 접근할 수 있는 7개 키워드를 발견한다. 사건을 풀어나가는 열쇠는 가우디가 설계한 성가족 성당, 구엘공원, 카사밀라, 카사 바르요 등 7개 건물이 모두 바르셀로나 시내에 별자리 모양으로 들어서 있었다는 사실.

하지만 가우디의 죽음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마리아와 미겔은 사건의 진실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자신들도 살해될 수밖에 없는 운명과 마주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수수께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은 물론 수학, 역사학, 도상학, 인류학을 아우르는 지적 추리의 과정이 전개된다.<예담·1만3천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방송작가 최완규씨

첫소설 '히든' 출간



'종합병원', '상도', '허준', '울인', '주몽' 등 인기드라마를 썼던 방송작가 최완규씨가 처음으로 장편소설을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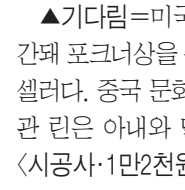
이번에 출간된 '히든'(전 2권)은 재일 조선인 2세 김성만을 주인공으로 한 실화 소설로, 드라마와 영화로도 제작될 예정이어서 더 관심을 끈다.

도박에 발을 들였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친구 때문에 김성만은 야쿠자의 세계에 몸을 담게 되고, 뒤늦게 재능을 알게 된 그는 도박으로 승승장구한다. 항상 평범한 생활을 꿈꾸는 주인공은 이미 야쿠자의 입장에서 곱게 내보내 줄 수 없는 존재. 암흑으로 내몰리는 재일 조선인의 드라마같은 삶이 행간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랜덤하우스·각 권 9천원>



▲교양, 모든 것의 시작=재일 조선인 2세 도쿄 경제대학 서경석 교수가 지난 2003년 카토 슈이치 박사와 노마 필드 교수를 초빙해 열었던 특별강연 "교양의 재성을 위하여"를 엮은 책. 우리 시대 인문교양이란 무엇이며, 어떤 가치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노마드북스·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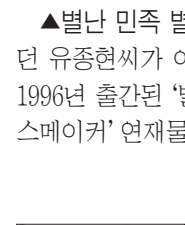
▲기다림=미국의 중국 작가 하 진의 첫 번째 장편소설. 1999년 출간돼 포크너상을 수상했고, 이듬해 풀리처상 최종후보에 오른 베스트셀러다. 중국 문화혁명 시기,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한 시골 출신 군의 관인은 아내와 달리 현대적이고 세련된 간호사와 사랑에 빠진다. <시공사·1만2천원>



▲도올 김용옥 비판-우리시대의 부끄러움을 말한다=자칭 '경계 없는 개방 연구자' 김성태씨가 도올 김용옥을 비판한다. 저자는 동양고전의 전문도 잘 알지 못하는 김용옥이 단 한 권의 고전도 번역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대동공의 인기로 '똥' "인문학계의 황우시"이라고 꼬집는다. <옛오늘·1만6천원>



▲1943년, 베를린, 러브스토리=나치 남편의 아내와 유대인 남성 사이의 '이투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린 논픽션. 작가 에리카 피셔가 쓴 이 책은 '에이미와 재규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돼 1999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은곰상을 수상했고, 세계 16개국에서 번역 출간됐다. <예담·1만2천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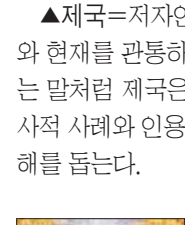
▲별난 민족 별난 에로스=아프리카 지역에서 외교관으로 일했던 유종현씨가 아프리카 소수 민족의 다양한 성문화를 정리했다. 1996년 출간된 '별난 인종 별난 에로스'에 지난 2004년 주간지 '뉴스메이커' 연재를 '지구촌 성문화 기행'을 추가했다. <책담·1만2천원>



▲한자야, 미안해(전 2권)=각각의 부수와 같은 의미 및 소리를 가진 파생자들을 꼬리에 꼬리를 모는 형식으로 소개한 '부수편'과 150개 필수 어휘를 재미있게 분석한 '어휘편'이 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주부 등 한자에 흥미를 붙이고 사람에게 안성맞춤이다. <랩덤하우스·각 권 1만5천원>



▲배터리(전 6권)=일본에서 800만부가 팔린 아사노 아쓰코의 성장소설. 영화와 만화로도 제작됐다. 야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이는 소년 다쿠미와 공부와 야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는 투수와 포수, 즉 '배터리'의 이야기를 통해 성장의 참 의미를 표현한다. <해냄·각 권 8천800원>



▲제국=저자인 스티븐 하우 옥스퍼드대 정치학과 교수는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제국'을 꼽는다. '미(美)제국주의'라는 말처럼 제국은 먼 듯 우리와 가깝다고 저자는 말한다. 다양한 역사적 사례와 인용으로 제국과 식민지의 역사를 정리하고 '지금'의 이해를 돕는다. <뿌리와파리·1만5천원>



▲위험한 미술관=지금은 명작의 반열에 올라 있지만 당대에는 비난에 시달렸던 미술가들의 생애와 작품을 볼 수 있는 가상의 기획전시관. 천 박하다는 이유로 거칠당한 카라바조의 성화에서부터 요셉 보이스의 퍼포먼스까지 6명의 예술가와 대표작들이 소개돼 있다. <웅진지식하우스·1만5천원>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9월3일]
 ●과 정: 주반(10:00~13:50) / 이반(19:00~22:30)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내 용: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교수진: 한용호·박한수 교수(저자직강)
 ●기 타: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객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입)모집중
 (개강 9월 2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매월초)
 ●과 정: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기 타: 훈련수료 후 개인별 합금(노동부)

●노동부직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철서점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합격:세무 공무원 1800원을 하반기, 내년 상반기 2회 추가 모집예정!! =

7·9 급 공무원
 =전직중 완전대비=
전·일반행정·교육행정 [합격대비] 개강 9월1주 야반 모집 (예약접수중)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www.mdgoal.co.kr ☎ 222-4560

9월대개강 (1차개강 9월 1일 / 2차개강 9월 3일)
 전문대졸업(예정자), 4년제대학 2학년만 마치면 누구나 원하는대학, 원하는 학과 3학년으로 편입가능!!
 개설과목: 영어, 수학, 생물, 화학, 유기화학, 물리, 한문, 한의학, TEPS

일반대, 사립대 편입반 / **약대, 한의대 편입반**
MEET/DEET 전문대입반 / **TEPS 최단기 고득점반**

김영면입·PMS학원 (광주동부경철서점) ☎ 227-8088

Gallery RODEM 직수입 앤틱 전문매장- 로템갤러리 신제품출시

찾아오시는길: 17동행선 - 역삼역 - 1번출구 - 남동로 - 로템갤러리

특별기획상품행사 ● **진열상품 30%~최고50%** (일부품목제외)

대표전화: (062) 653-4022
 물류센터: 담양군 청평면 유천리 253-1